“생명 소중함 알리는 소식지 우리 손에 달렸죠”

생명나눔실천본부 · 현대불교신문 공동기획
‘생명나눔 희망선물’
⑥ ‘행복한 빈손’ 배송 봉사 현장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매달 마지막 주 월 · 화 · 수요일 소식지 ‘행복한 빈손’ 배송 봉사를 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들. 사진=박재완 기자

매달 30여 명 자발적 참여…발송 봉사 평균 20년
“‘베테랑’ 봉사자들이 생명나눔 운동 이끄는 힘”

20명은 족히 앉을 수 있을 것 같은 커다란 회의 탁자 위로 종이봉투와 책자가 가득 쌓였다. 10여 명이 팀을 이뤄 둘러앉아 한쪽에서 책자를 종이봉투에 넣으면 다른 한쪽에서는 주소 라벨을 붙인다. 밀봉된 봉투가 가득 쌓이면 또 다른 한쪽에서 정확히 숫자를 세어 노끈으로 묶고 바구니에 담는다. 중간중간 “까르르~” 웃음소리가 이어지지만 손은 바쁘게 움직인다. 익숙한 손짓으로 자신이 할 일을 척척해내는 이들은 바로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 소식지 ‘행복한 빈손’ 배송 봉사자들이다.

매달 마지막 주 월 · 화 · 수요일 서울 종로 생명나눔실천본부 사무국 회의실은 사람들로 왁자지껄해진다. 생명나눔실천본부가 한 달에 한 번 발행하는 소식지 ‘행복한 빈손’ 배송 작업을 위해 봉사자들이 모이기 때문. 소식지 1만 4000부를 전국 후원회원과 기관들에 발송하기 위해 3일간 매일 10여 명씩 총 30여 명이 봉사에 나선다. 모두 발송봉사 평균 20년이 넘는 ‘베테랑’이다. 1998년 제작을 시작한 ‘행복한 빈손’은 2022년 7월 현재 293호를 발행, 25년의 역사를 가졌다. 봉사자 대부분이 초창기 멤버라는 계산이 나온다.

“이십몇 년 된 것 같은데 언제부턴지 기억도 안 나요.”

6월 27일 월요일 오전, 생명나눔실천본부 사무국에서 만난 손강자 보살(78)은 배송 봉사자들 중 ‘큰형님’이다. 손강자 보살은 자식과 동생들을 탈 없이 키워낸 후, 요양원과 군종교구 등에서 꾸준히 봉사활동을 해오다 요양원 책꽂이에서 우연히 생명나눔실천본부 홍보책자를 발견하고 그 길로 희망등록했다. 이어 자연스럽게 봉사자가 됐고 소식지 발송 작업부터 거리 캠페인까지 각종 행사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고 있다. 손강자 보살이 꾸준히 봉사를 이어가자 감동한 딸과 사위도 장기기증 희망동록 동참자가 됐다. 최근 들어 건강 문제로 봉사활동을 줄이면서도 ‘행복한 빈손’ 배송 봉사는 손을 놓지 않은 이유다.

여든을 앞둔 고령에도 허리를 꼿꼿이 유지한 채 소식지를 분류하던 손강자 보살은 “엄마의 활동을 보고 가족들도 자연스럽게 희망등록에 동참하는 걸 보고 건강이 허락하는 동안에는 지속해야겠다고 다짐했다”고 말했다.

배송작업 마지막 날인 6월 29일 만난 봉사자 막내 김순임 보살(64)은 “매달 초 달력을 넘길 때마다 봉사 날짜를 가장 먼저 표시하는 습관이 벌써 20년이 다돼간다”고 말하며 웃었다.

조계종 전 총무원장 법장 스님 입적 후(2005년) 생명나눔실천본부에 장기기증 희망등록을 하고 봉사활동도 함께 시작했다는 김순임 보살은 “다양한 계층 사람들에게 생명의 소중함을 전파하고 이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소식지를 직접 배송한다는 것에 큰 자부심을 갖고 있다”면서 “봉사를 위해 생업인 아르바이트 날짜를 조절할 정도로 배송작업 봉사에 정성을 다한다”고 말했다.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일면 스님은 봉사자들의 진심과 꾸준함을 알기에 소식지 배송 날이면 사무실에 꼭 방문해 봉사자들을 응원하고 감사의 뜻을 전한다.

일면 스님은 “생명나눔실천본부 출범 초기부터 시작한 자원봉사활동은 이제 생명나눔운동을 확산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활동”이라며 “‘베테랑’ 봉사자들이야말로 생명나눔운동본부가 지속될 수 있는 이유이자 생명나눔 운동을 이끄는 힘”이라고 말했다.

매달 전해오는 생명나눔 소식 ‘행복한 빈손’

1998년부터 제작, 25년 이어
1만4천부 발송…‘회계보고 장’



생명나눔실천본부 활동과 가치를 홍보하기 위해 1998년 제작 · 발송을 시작한 ‘행복한 빈손’은 2022년 7월 현재 293호까지 발행됐다.

총 30페이지로 구성된 ‘행복한 빈손’은 이사장 일면 스님의 법문이 담긴 ‘생명나눔 편지’로 시작한다. 이와 함께 생명나눔실천 현장을 생생히 전달하고 장기기증 서약 방법을 담은 ‘함께해요 생명나눔’, 치료비 지원이 간절한 이들을 소개하는 ‘이달의 환자’, 도움을 받았던 환자의 소식을 전하는 ‘환자 감사편지’, 희망등록자 및 후원자 명단이 기록된 ‘생명나눔 소식’ 등으로 구성됐다.

생명나눔 실천 현장을 생생하게 보여줄 뿐 아니라 매달 후원자들이 보내준 회비가 어디에 얼마나 쓰이는지 상세히 공개하고 보고함으로써 활동은 물론, 본부와 후원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게다가 생명나눔실천본부가 불교계 장기기증 기관인 만큼 불자들의 이야기도 담겨 포교지로도 손색이 없다. 다양한 이야기 거리가 가득한 소식지는 현재 전국 후원회원과 각종 기관에 매달 1만 4000부 발송되고 있다.

이형렬 생명나눔실천본부 사무총장은 “소식지를 통해 장기기증과 지원금 전달 등 다양한 활동 소식을 접하는 후원자들이 자신의 후원이 헛되지 않음을 알고 생명나눔 확산에 더 적극적으로 동참하려는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효과도 갖는다”며 “앞으로도 친절하고 꼼꼼한 ‘회계 보고의 장’이자 ‘정보 창구’로서 소식지 제작에 정성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풍성한 행사로 생명나눔 실천

한 눈에 살펴보는 생명나눔 하반기 행사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는 장기기증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확대하고 생명존중의 가치를 돌아보는 계기를 제공하고자 다양한 문화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2년 넘게 이어진 코로나19 확산으로 잠시 주춤하기는 했지만 전국 대학가와 복지관을 중심으로 한 소규모 장기기증 희망등록 캠페인을 꾸준히 전개해 왔다. 올해 들어 코로나19 거리두기가 점차 완화됨에 따라 생명나눔실천본부는 하반기부터 일상을 재개하고 부처님 자비사상 전파와 법인 사업 홍보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매서웠던 코로나19 한파에서 벗어나 다양한 장소에서 생명나눔 실천과 장기기증 운동 확산을 위한 캠페인이 펼쳐진다.

먼저 생명나눔실천본부 행사의 꽃이라 불리는 **‘생명나눔과 함께하는 희망걷기 대회’**가 9월 3일, 서울 동국대 만해광장에서 개최된다. 희망 걷기대회는 매해 초여름, 생명나눔실천본부 회원과 일반시민, 중 · 고등학생 등 2000여명이 동참해 생명존중을 다짐하고 나눔문화 확산을 기원하는 자리로 진행돼 왔다. 코로나19로 인한 거리두기로 3년간 개최되지 못해 아쉬움이 컸던 만큼, 그동안 대회를 즐겨왔던 동참자들이 대거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만해광장을 출발해 남산순환로 4km를 걷는 일정으로 진행되며 회향 후에는 축하공연도 준비돼 있다. 바쁜 일상을 잠시 내려놓고 함께 남산 숲길을 천천히 걸으며 신록이 주는 푸르른 기운을 누리고 사물들과 속삭이듯 한마음 한뜻으로 대화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가을엔 희망걷기 대회 · 산사음악회로 더 풍성하고
겨울엔 자선음악회 · 정나누기로 따뜻한 세상 구현

불암사 경내에 국화가 만발해지면 열리는 **‘생명나눔의 날 산사음악회’**는 9월 24일, 문화공연과 함께 나눔의 의미를 되새기는 아름다운 무대로 진행된다. 트로트, 발라드, 댄스 가수들이 총출동해 신명나는 음악 무대를 선사할 예정이다.

11월 5일에는 난치병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환우와 이식 대기자 치료비 모금을 위한 **‘제13회 생명나눔 자선음악회’**를 개최하고 이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한다. 행사는 환자치료비 전달식으로 막을 올린데 이어 올 한 해 생명나눔 활성화에 공로가 큰 개인 및 단체를 치하하는 생명나눔대상 시상식이 진행된다. 생명나눔대상은 생명나눔실천본부의 활동을 널리 알리고 더 밝고 깨끗한 사회를 구현하고자 제정된 것으로, 지난해에는 배수지 배우가 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본격적인 음악회에서는 생명나눔 산하단체인 마하무용단의 공연과 국악가수 공연, 태권도 시범 등이 이어질 예정이다.

12월 6일, 서울 달동네와 영구임대 아파트 인근에서 진행되는 **‘제9회 생명나눔과 함께하는 따뜻한 정 나누기’**도 빠질 수 없다. 이미 수년 전부터 서울 노원구 백사마을 등 달동네에 솜이불 수백 채를 전달해온 생명나눔실천본부는 올겨울에도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정을 나눈다. 일면 스님을 비롯한 생명나눔실천본부 홍보대사 등이 직접 나서 김치, 라면 등 기초생활용품을 전달하고 따듯한 겨울 되기를 기원할 예정이다.

일면 스님은 “생명나눔실천본부는 장기기증 희망등록으로 매년 50여 명 정도의 생명을 살리고 있으며 이뿐만 아니라 전국 사찰과 대학, 군부대 등 다양한 영역에서 다채로운 활동으로 생명존중 문화 확산을 위해 힘쓰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문화활동으로 장기기증 인식 개선과 희망등록 활성화, 자살예방 활동 등에 적극 나서 장기기증 희망등록이 불교계를 넘어 모든 국민이 참여하는 기부문화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02)734-8050

임은호 기자

